



아르헨 ▶ 오늘 한 나라는 운다 ◀ 독일



메시

4년 전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너무 일찍 만난 감이 있다. 남미 강호 아르헨티나와 유럽의 자존심 독일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8강 무대에서 격돌한다.

아르헨티나와 독일은 3일 오후(이하 한국시간) 11시 남아공 케이프타운 그린포인트 스타디움에서 대회 4강 진출 티켓을 놓고 한 판 대결을 벌인다. 결승에서나 기대할만한 대진이 일찌감치 8강에서 싸웠다.

하지만 4년 전 독일 월드컵 때도 그랬다.

당시에는 아르헨티나가 후반 4분 로베르토 아얄라의 선제골로 앞서다 35분 독일 미로슬라프 클로제에게 동점골을 내줘 승부는 결국 연장전까지 이어졌고, 승부차기에서 독일이 4-2로 이겨 4강에 올랐다.

영원한 우승 후보 아르헨티나와 독일은 역대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다섯 차례나 싸워 독일이 2승2무(승부차기 포함)1패로 앞섰다.

1958년 스웨덴 대회에서는 조별리그에서부터 만나 독일이 3-1로 이겼고, 역시 조별리그에서 격돌한 1966년 잉글랜드 대회에서는 0-0으로 비겼다.

1986년 멕시코 대회와 1990년 이탈리아 대회에서는 2회 연속 결승에서 우승을 놓

남미·유럽 자존심 대결 역대 월드컵 독일 우승 A매치는 아르헨이 앞서

고 싸웠다.

1986년에는 아르헨티나(3-2 승), 1990년에는 독일(1-0 승)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그리고 2006년 독일 대회에서는 8강에서 아르헨티나를 꺾은 독일이 3위를 차지했다.

독일 월드컵 당시 맞대결에 나섰던 카를로스 테베스, 막시 로드리게스, 가브리엘 에인세(이상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클로제, 루카스 포돌스키, 필립 람,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이상 독일) 등은 이번 남아공 월드컵에서도 팀의 주축으로 활약하고 있다.

월드컵 성적에서는 독일이 앞서 있지만 통산 A매치 전적에서는 아르헨티나가 8승 5무5패로 우위다. 가장 최근 맞대결이었던 지난 3월4일 뮌헨에서 치른 친선경기에서도 전반 45분 터진 곤살로 이과인의 결승골로 아르헨티나가 1-0으로 이겼다.

아르헨티나는 월드컵에서 두 차례, 독일은 세 차례나 정상을 밟았다. 이번 남아공 월드컵에서도 두 팀은 여전히 강력한 우승 후보인데 8강전이 끝나면 하나는 짐을 싸야 한다.



포돌스키

/연합뉴스



아르헨 마라도나 감독(왼쪽)과 독일 리프 감독.

	아르헨	독일
1958년 조별리그	1	3
1966년 조별리그	0	0
1986년 결승	3	2
1990년 결승	0	1
2006년 8강	0	0
(승부차기)	2	4

중국이 월드컵에서 안되는 이유는?

팬 많지만 '스타 선수' 키우지 못해

인구 13억 명에 이르는 중국이 '지구촌 잔치'인 월드컵 축구대회 본선에 좀처럼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뉴욕타임스는 지난 1일(한국시간) 인터넷판에 '중국 축구 스타는 어디 있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그 이

유를 분석했다.

이 기사는 "중국인은 전통적으로 월드컵 축구의 열광적 팬들이다. 한국과 그리스의 경기를 시청한 사람이 2400만 명에 이르고 단일국가로는 월드컵 시청자가 가장 많은 나라다. 그러나 북한도 진출한 월드컵 본선에

중국을 이해도 나가지 못했다"며 중국 전문가들에게 중국 축구 부진의 원인을 물었다.

쉬웨이훙 공대 교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 출전한 나라들의 인구를 더하면 15억 명인데 비해 중국만 13억 명이다. 그중에서 (축구

를 잘하는) 11명이 없어 월드컵에 나가 지 못한 셈"이라며 "미국은 축구 인구가 별로 없는데도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만 중국은 축구 팬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인데도 그 반대"라며 한탄했다.

쉬교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수준급 축구 선수 자원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며 "축구 경기를 보고 즐기는 것은 좋아하지만 직접 선수로 나서거나 자신의 아이들을 축구 선수로 키우는 것에 소극적"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브랜드 월드컵' 아디다스·나이키·푸마 "8강전이 싫어"

후원 국가끼리 대결

'두 팀 중 하나는 4강 길목에서 짐을 싸야 한다' 세계적인 스포츠용품업체 아디다스와 나이키, 푸마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8강 경기를 앞두고 냉가슴을 앓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들 3개 스포츠 브

랜드가 후원하는 국가끼리 준결승 진출을 티켓을 놓고 운명의 대결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남아공 월드컵 본선에 올랐던 32개국 중 아디다스는 12개국, 나이키는 9개국, 푸마는 7개국을 후원했다.

16강까지 아디다스가 아르헨티나, 스페인, 독일, 파라과이, 일본,

멕시코, 슬로바키아 등 가장 많은 7개국을 진출시켰고 나이키는 한국과 브라질, 네덜란드, 미국, 포르투갈 등 5개국, 푸마는 우루과이, 가나 등 2개국을 배출했다.

가나 등 2개국을 통과한 팀들은 각각 같은 브랜드를 입은 나라와 준결승 티켓을 놓고 외나무다리 대결을 벌여야 할 처지다. /연합뉴스

법률경제전문법인 인미음법률경제(주)
"지역별, 용도별 다양한 플랜이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원하는 플랜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치: 광주의 전남일보 4층
062) 525-8880
010-8640-3990

지역	소제지	면적(㎡)	건물면적	건물높이	최대가	비고		
광주	월곡동	1491	1998㎡	8층	8200			
	연남동	851	8천	5층	5500			
	연남동	1586	2933㎡	19층	19000			
	우산동	383	1911㎡	8층	8000			
	우산동	208	298㎡	19층	19000			
	수원동	2579	4955㎡	39층	39000			
	오동동	876	187㎡	1층	1800			
	서동	473	1998㎡	8층	8000			
	화정동	283	224㎡	11층	11000			
	주월동	363	2955㎡	19층	19000			
대구	자성동	1963	2937㎡	19층	19000			
	자성동	119	78㎡	2층	2800			
	송정동	114	811㎡	39층	39000			
	송정동	281	1919㎡	7층	7000			
	형곡동	25190	482㎡	2층	2800			
	달서동	1491	1998㎡	8층	8000			
	달서동	337	8천	5층	5500			
	달서동	292	1998㎡	8층	8000			
	달서동	340	1998㎡	8층	8000			
	달서동	1242	2937㎡	4층	4800			
부산	동래동	2433	482㎡	2층	2800			
	동래동	1173	1919㎡	8층	8000			
	동래동	22116	1919㎡	8층	8000			
	죽림동	3469	425㎡	3층	3800			
	모래매곡동	2782	1955㎡	5층	5500			
	동래동	684	681㎡	4층	4800			
	동래동	1567	1919㎡	8층	8000			
	동래동	1472	2937㎡	11층	11000			
	영랑동	50196	2955㎡	19층	19000			
	모래매곡동	6258	681㎡	4층	4800			
대전	동구동	48604	1955㎡	19층	19000			
	동구동	1093	1919㎡	8층	8000			
	상계동	3838	6819㎡	29층	29000			
	상계동	2786	1919㎡	7층	7000			
	도당동	145983	681㎡	4층	4800			
	동구동	15789	1919㎡	1층	1800			
	충청	충청	225/468	4955㎡	39층	39000		
		충청	167/111	2955㎡	19층	19000		
		충청	82/74	425㎡	4층	4800		
		충청	383/630	3955㎡	29층	29000		
충청		179/316	2911㎡	9층	9000			
충청		35/59	7천	4층	4800			
충청		210/874	3955㎡	19층	19000			
전남		전남	1482/998	22㎡	15층	15000	롯데캐슬2호	
		전남	1504/520	6922㎡	49층	49000	단독	
		전남	27/86	1955㎡	5층	5500	상가주택	
	전남	207/186	1919㎡	1층	1800	단독		
	전남	517/220	1798㎡	1층	1800	6층		
	전남	237/1028	1099㎡	4층	4800	5층		
	전남	281/1112	1691㎡	8층	8000	4층		
	전남	63/78	192㎡	4층	4800	전남		
	전남	107/144	1919㎡	8층	8000	2층		
	전남	134/112	3955㎡	29층	29000	단독		
전북	전북	982/793	7982㎡	59층	59000	전북		
	전북	301/525	4955㎡	39층	39000	상가주택		
	전북	152/233	1919㎡	6층	6000	3층		
	전북	943/1283	7982㎡	59층	59000	4층		
	전북	612/321	2955㎡	29층	29000	2층		
	전북	440/1011	1099㎡	7982㎡	49층	49000	전북	
	전북	202/191	2955㎡	19층	19000	전북		
	전북	202/192	2955㎡	19층	19000	전북		
	전북	121/182	4955㎡	39층	39000	4층		
	전북	217/449	2955㎡	19층	19000	3층		
전북	전북	415/2244	1691㎡	8층	8000	전북		
	전북	1126/1827	3955㎡	29층	29000	전북		
	전북	1833/616	2955㎡	19층	19000	전북		
	전북	982/2273	1391㎡	59층	59000	4층		
	전북	전북	440/1011	1099㎡	7982㎡	49층	49000	전북
		전북	202/191	2955㎡	19층	19000	전북	
		전북	202/192	2955㎡	19층	19000	전북	
		전북	121/182	4955㎡	39층	39000	4층	
		전북	217/449	2955㎡	19층	19000	3층	
		전북	415/2244	1691㎡	8층	8000	전북	
전북		1126/1827	3955㎡	29층	29000	전북		
전북		1833/616	2955㎡	19층	19000	전북		
전북		982/2273	1391㎡	59층	59000	4층		
전북		440/1011	1099㎡	7982㎡	49층	49000	전북	

인기폭발 신제품!!
아내가 '큰놈' 개발음

아내가 개발한 큰놈이 인기폭 발이다. 그동안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듯 큰 기대를 걸고 이것저것을 고가도 사서 사용해 보았으나 사용하지는 못하다가 이번이 실패하여 아까운 돈만 날려 버리고 허탈함 속에서 불신임만 쌓여 갔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큰놈을 보고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듯이 혹시나 하고 이번에도 반신반의하여 사용해 보았더니 그 신기함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으며 사용후 기분 좋게 일어났으며 잠시간 지속되는 편안함이 신기함을 넘어 돌아간 듯 뿌듯함을 느낀다. 알기부전 개선을 위한 기구 실용신안 특허 제20-2009-0014857호는 보지 않은 것은 유사품입니다. 99,000원

인기폭발 "양코" 지구력향상!
본 제품은 식약청 통관 미국 직수입품입니다. 40대부터 80대까지 당당히 지므로 복용하신 분이 다시 찾습니다. (통신판매 신고제188호) (G-FLOW)

1577-4101
010-8952-4114, 010-8558-4114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11 전선영 (통신판매 NO. 19-5301호)

다이아몬드 大物
현대 남성들이의 최대의 고민해결!

중간에 시들거나 강직도가 약해지고 너무 빠르... 분들의 "기"가 원활해지도록 도움 드려본인 스스로 처음 보며 주사나 약도 아니고 반지 같은 링이나 진공 펌프도 아닌 신제품 큰놈은 사용이 편리하고 간단하여 고강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불타게 날개 돋쳐 나가고 있다. * 기구를 선호하지 않는 분은 회춘의 꿈, 파워마카-100% 분말 무대신하며 좋습니다. (30일분 90,000 60일분 150,000) * 구매시 핫나경서적어 없는 것은 유사품입니다. 99,000원

먹어야 해결된다. 여성탈모, 무모
이제 고민 끝!
여성전용 먹는 탈모제품의 특징

의사와 약사가 명명해 주고 3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개발한 이 제품은 그동안 남모르게 고민해오던 탈모 무모증 여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고 있어 화제이다. 여성의 탈모의 원인은 모낭의 영양결핍입니다. 남성의 탈모의 원인은 모낭 위축입니다. 원인이 다르면 제품도 달라져야겠지요? 최근에 영양 공급이 바르고 감아서 해결될까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먹는 방법입니다

머리카락이 굵어지며
배꼽아래 체모가 풍성해 진다.

1588-4102
010-5296-4114, 010-8952-4114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11 전선영 (통신판매 NO. 19-5301호)